

“책을 읽는 능력은 ‘나’를 만들어가는 최상의 방책”

“우리는 똑똑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똑똑해진다. 우리 각자는 독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독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하면서 비로소 독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이 늘어남과 함께 정신이 성장하고 사고가 깊어지며 세계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 그것이 독서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와 ‘나의 세계’를 새롭게 변형하고 갱신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읽는 것이 나’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무게를 지닌다.”

‘로자’라는 서평가가 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로자’라는 별칭은 꽤 익숙하다. 그는 중형무진 책을 읽고 글을 쓴다.

로자 이현우가 ‘책의 바다’에서 역사하지 않기 위해 벌인 6년간의 투쟁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책에 빠져 죽지 않기’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간 쓴 서평을 엮은 것이다. ‘책을 읽을 자유’ (2000-2010), ‘그래도 책읽기는 계속된다’ (2020-2012) 이후 세 번째 책으로 총 173편 글을 분야별로 나눠 실었다.

책의 위기라고 말해지는 시대에 로자는 책의 바다를 지키는 등대지기를 자처한다. 혹자는 ‘책이라는 공전을 지키는 경비병’이라고도 말한다.

이번에 펴낸 책은 책을 고르고 읽는 즐거움을 느끼는 데 초점을 뒀다. 잘 골라서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저자는 지난 18년간 해온 서평에 대해 ‘필독할 책을 서로가 걸러주고, 동시에 한동안 읽지 못할 책에 대해서는 핵심이라도 챙겨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은 모두 인문, 역사, 정치, 사회, 문화, 과학의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의 날권으로 따지면 방대하지만 관련 주제의 핵심이 간결하게 정리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책에 빠져 죽지 않기

이현우 지음

있어 어렵지 않다.

저자는 30년여 전 대학생 시절 스무 권 남짓했던 소장도서에서 지금은 수만 권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이 책들을 다 읽으려는 욕심은 바닷물을 전부 들이켜겠다는 것만큼이나 무망한 욕심이다”면서 “언젠가 그 욕심을 다 비우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 책장에 20권 정도만 남겨놓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까지 내가 써줄해야 할 현실은 책의 바다”라고 했다.

1부 ‘책의 바다’는 책의 미래와 독서에 관련된 글이다. 알베르트 망구엘의 ‘책 읽는 사람들’, 후지하라 가즈히로의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 피에르 바야르의 ‘읽지 않는 책에 대해 말하는 법’ 등을 읽은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2부는 ‘인문의 바다’다. 인생을 바꾸는 고전의 힘,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치오 오르디네의 ‘쓸모 없는 것들의 쓸모 있음’, 리링의 ‘전쟁은 속임수다’,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

서평가 ‘로자’가 지난 6년간 쓴 서평 173편 묶어 인문·역사·정치·사회·문화·과학 등 7개 분야 망라 책 제대로 고르고 읽는 즐거움 느끼도록 하는데 초점



다양한 책들이 비치돼 있는 책방 ‘숨’과 수많은 책 표지가 내걸린 알라딘 서점 입구.



의 정복, 노자의 ‘처음부터 새로 읽는 노자 도덕경’ 등을 만날 수 있다.

역사를 다른 글들도 눈에 띈다. 3부 ‘역사의 바다’에는 자본론에 몰든 세계사, 알려지지 않는 역사를 세밀하게 고찰한 글이 담겨 있다.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사의 구조’, 존 허스트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 앤서니 기든스의 ‘유럽의 미래를 말한다’ 등에서 저자의 역사에 대한 안목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4부 ‘정치의 바다’, 5부 ‘사회의 바다’, 6부 ‘문화의 바다’, 7부 ‘과학의 바다’에도 로자 특유의 문체와 빛나는 통찰력이 깃들여 있다.

서평을 읽고는 싶지만 시간이 없는 독자들을 위한 친절한 나침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저자는 책을 읽을 것을 강조한다. 그는 ‘읽는 인간’과 ‘읽지 않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책을 읽는 능력은 각자가 ‘나’를 만들어가는 최상의 방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더 나은 정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우리가 무얼 읽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독서는 우리 자신을 바꾸면서 동시에 이 사회를 바꾸어가는 힘이다.”

〈교유서가·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손보미 지음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

2009년 21세기문학 신인상 수상,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한 작가 손보미가 두 번째 소설집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을 펴냈다. 세밀한 구성과 세련된 분위기로 폭넓은 지지를 받은 손 작가는 대산문학신인상, 한국일보문학상, 김준성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인정을 받았다. 모두 9편의 작품의 수록된 이번 소설집에는 한국일보문학상을 받은 ‘산책’, 제6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입시교사’도 담겨 있다.

“말로 규정하지 않고 침묵으로 환기하는 스타일”이라는 신형철 문학평론가의 평처럼 작가는 삶이 불가해한 존재의 침입으로 인해 미묘하게 변해가는 양상을 묘사한다.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는 인물들이 새로운 자아와 관계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특유의 정갈한 문체로 담아낸다.

작가의 소설은 주로 어떤 존재나 사건이 일상으로 침입해오는 순간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무단 침입한 고양이들’은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에 자꾸 답을 넣어오는 고양이들을 퇴치하려 떠나는 남자의 이야기이다. ‘산책’은 밤마다 외출을 나가는 아버지의 집에 딸네 부부가 느닷없이 방문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상자 사나이’는 “누구에게나 일생에 한 번은 꼭 배달되는” 상자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의 균열은 다소 우연적으로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성장과 반성은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이를 만나는 순간 “무엇인가를 확신할 수 없는 처지”를 환기한다. 문학평론가 김나영은 손 작가의 소설이 “각자의 삶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이 어쩌지 불가능한가에 대한 집요하고도 예리한 성찰”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칼 세이건 지음, 김지선 옮김 ‘코스믹 커넥션’

지난 2월 6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한 초대형 로켓 팰컨 헤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보다 많은 중량을 보다 싸게 우주 공간에 보낼 기술이 개발된 것이다. 또한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은 4월 18일 태양계 밖 외계 행성 탐사 우주 망원경인 TESS를, 5월 5일에 화성 지질 탐사 착륙선인 인사이트를 발사했다.

2018년은 인류의 우주 탐사 개발 역사에서 획기적인 해로 기록될 지 모른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도 달과 소행성, 화성 등을 탐사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최고의 과학 베스트셀러이자 ‘코스모스’의 원형인 칼 세이건(1934-1996)의 첫 천문학 베스트셀러 ‘코스믹 커넥션-우주에서 본 우리’가 출간됐다. 1973년 첫 출간된 첫해 50만 부 넘게 팔리며 칼 세이건을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한 그의 첫 대중 과학서다. 책은 우주를 담은 과학자이자 화성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과학자 칼 세이건의 꿈과 비전이 담겨 있다. 책은 1970년대 초반 칼 세이건 본인이 참여한 파이오니어 계획이나 매리너 계획(당시로서는)의 최신 과학적 성과와, 이를 외계 생명체라는 미래적 연구 지원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현대 천문학계에서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태양계 행성학, 외계 행성 탐사, 우주 생물학, 외계 지성체 탐사 등 저자가 창시했거나 개척했던 학문 분야의 출발점과 핵심 사상도 엿볼 수 있다. 칼 세이건의 예측과 전망, 예언 중 어떤 것은 실현됐고 또 어떤 것은 폐기됐다. 과학은 수많은 폐기된 예언들을 양분 삼아 발전한다. 책을 통해 독자들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어린 시절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과학을 오염시키지 않는 한 과학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사이언스북스·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한표 지음 ‘부와 혁신의 설계자들’

부와 혁신을 일군 설계자들의 철학과 비전을 살펴보면 2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관찰하기’와 ‘질문하기’다. 그들은 서로 처한 환경은 달랐지만 관찰과 질문에서 시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과 창조에 나섰다.

이 책은 ‘도전을 하는 설계자들’, ‘질문을 하는 설계자들’, ‘감동을 주는 설계자들’ 등 3개 장으로 구성됐다.

‘샤오미제이션’을 불러일으킨 중국 IT기업가 레이저은 샤오미(小米)를 창업하면서 크고 거창한 것을 버리고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다. 영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제임스 다이슨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창의성과 비전, 완벽한 디자인에 대한 집착, 저가 아닌 프리미엄 제품 승부에서 잡스와 공통점이 많다.

메신저 QQ를 운영하는 텐센트를 이끌고 있는 마화팅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3문(問) 철학’을 외친다. 그는 차별적 모방론과 전략적 투자로 ‘연방 제국’을 꿈꾸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을 개발한 러시아의 파벨 두로프는 자연과 문명, 역사와 미술 등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텔레그램의 사명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텔레그램의 모토를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이야기할 권리’로 삼았다.

책에 나온 인물들은 관찰과 질문을 통해 창조하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제공했기에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부와 혁신의 신대륙에 도착할 수 있었다.

〈북카라반·1만4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